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곰 인형 이미지를 통한
내적 상처치유에 대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조 소 과

박 성 하

곰 인형 이미지를 통한
내적상처치유에 대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조 소 과

박 성 하

인 준 서

박성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 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논 문 개 요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받는 상처에는 크게 신체적인 상처와 심리적인 상처로 나뉘지며, 타인으로 인한 외부로부터 받는 상처인 상해(傷害)와 자신이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인 자해(自害)로 상처를 주는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인도 크고 작은 신체적 상처부터 시작하여 내적인 상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처를 입고, 입히며 살아왔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살아왔다. 본인은 작품 연구를 통하여 내적 상처를 표출하며 치유를 시도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조각을 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처를 형상화하며, 상처를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내보이는 소통의 한 수단이다. 이 행위를 통해 타자와 소통을 하며, 소통을 통해 공감을 얻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주고받음으로 내적인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돌을 자르고 정질을 하는 육체적인 노동 속 창작행위에서 고행(苦行)을 하며 도를 닦는 승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러한 과정은 선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해왔던 ‘고통을 예술로써 승화 시키는 행위’ 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작품으로써 승화하여 치유하고, 나아가 관객이 작품을 보고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 하였듯이 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형성 배경, 표현 방법 등을 서술 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근거가 되는 작품 형성 배경과 작품 표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작품분석에서는 조형적인 특성과 제작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1. 서론	1
-------------	---

II. 본론

1. 작품형성 배경

1) 인간의 상처	2
2) 작품으로 나타난 상처와 치유	5
3) 이행기의 대상으로서의 인형	6

2.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방법

1) 상처와 치유의 상징적 표현	8
2) 생명체로서의 인형	9
3) 태고적 순수함을 간직한 돌	11

3. 작품 분석	13
----------------	----

III. 결론	31
---------------	----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 작 품 1】 치유하다_피에타, 화강석,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알루미늄 와이어, 1200x1400x1300mm, 2014..... 13
- 【 작 품 2】 치유하다_지나친 관심, 붉은사암,오석 알루미늄와이어
400x200x470mm, 2014 16
- 【 작 품 3】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사암, 오석, 알루미늄 와이어
250x230x400mm, 2014 19
- 【 작 품 4】 치유하다_빨간리본, 사암,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알루미늄와이어, 460x 400x 400mm, 2014 21
- 【 작 품 5】 치유하다_녹색리본, 사암,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알루미늄 와이어, 300x270x 1270mm, 2014 23
- 【 작 품 6】 별이 빛나는 밤에, 사암, 오석,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알루미늄와이어, 300x 200x 500mm ,2014 25
- 【 작 품 7】 너와나, 사암,오석, 알루미늄와이어,
300x250x230mm, 2014 27
- 【 작 품 8】 누군가를 위한 선물, 사암, 오석,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700x600x1050mm, 2014 29

1 .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아무런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자라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받은 상처를 이겨내는 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부러진 뼈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제 자리에 붙지 않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찢어진 상처를 덮어두면 굼아서 덧나듯이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상처를 덮어 둘 것이 아니라 꺼내고, 열어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치과를 가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치과 가는 것 보다 쉽듯이 마음의 상처 또한 정면으로 상처를 마주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이겨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처란 두렵다고 하여 매번 도망치거나 회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하였듯 그대로 두면 덧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작품 활동을 하며 상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노력하였다. 이는 작품에서 상처의 흔적과 꿰매어진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외적 상처의 시각화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내적 상처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처는 본인의 상처이기도 하며,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상처와 아울러 사회가 가진 상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본 논문은 인간의 상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상처의 정의와 내적인 상처가 어떻게 작품으로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 작품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특징과 각각의 작품에 담겨진 제작 의도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제작방법을 기술하여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II. 본론

1. 작품형성 배경

1) 인간의 상처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본성에 있어서 사회적이 아닌 개체는 하찮은 존재이거나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존재이다.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공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이거나 신이다.¹⁾ 인간은 이처럼 사회적 동물로써 여럿이 모여 살며 생각을 교환하며 그 생각이 모여 문명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 만약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개개인이 각기 따로 살아가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들은 서로 닮아가길 바라고, 만일 바라지 않더라도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동일성을 이루기도 하고 획일화되기도 한다.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한 획일화라 하면 정치적인 통치나 종교적인 이유 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롯되기도 한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획일화를 동일성의 사유와 성좌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동일성의 사유라 함은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것이 ‘동일성의 사유’ 이고, 반대로 ‘동일성 앞에 물러나기’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추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회의 동일성이 강조가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자(Politics)>의 명언. 기원전 328년

되면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패러다임이 대두되어 크게는 아우슈비츠 학살과도 같은 동일성의 강요가 나타나기도 한다.²⁾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관리와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법이나 질서, 예의, 상식 등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규칙들이다. 언어도 그러한 동일성의 사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문화를 교류하고 나아가 크게는 문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떠한 물건을 칭하는 명사조차 각기 다르다면 기본적인 소통조차 되지 않아 문명은커녕 서로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언어라는 동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의사소통부터 시작하여 여러 프로세스 적인 면에서 비용의 절감과 시간의 절약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동일성은 이처럼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이득을 주지만 그 이득의 이면에는 개개인의 개성이 무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동일화에 동참 하지 못한, 동일성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넘치거나 혹은 모자란 개인, 혹은 무시 받기 쉬운 작은 집단이 생겨난다. 동일성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개성들이 무시되어지고,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고 상처를 준다.

동일성 앞에서는 특별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성을 이룬 객체들은 이상적인 것이며,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진 것이라 자신들이 기준을 세워냈기에 동일성 앞에서 다른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급하며 기준미달 인 것이다. 그래서 그에 속하지 못한 것들은 특별하지 않고 이상한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그 곳에서부터 상처는 시작된다. 이 상처는 신체에 생기는 외적 상처가 아닌 심리적으로 받는 내적인 상처로 이 상처는 ‘나는 맞는데

2) 강신주,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동녘, 2010, p280

너는 틀리다' 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바꿔 말해서 너는 옳은데 나는 옳지 못하고, 너는 좋은데 나는 좋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남들과 같이 있을 때 비슷해지려 노력한다. 그래서 남보다 못하면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행여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이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여도 사회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사회에서, 주위에서 개인을 상처주기도 한다.

본인도 살아가며 수많은 동일화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기적인 마음에 상대방에게 나와 같기를 강요하며 상처를 주었다. 또한 여러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생각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강요받아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가족 구성원 속에서 역할이라든지 남자는 곰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안 되고 로봇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어릴 적부터 받아온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고정관념의 강요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강요는 본인이 받으면서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고 이는 사회통념이라는 미명하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곤 한다. 이러한 상처는 작품 곳곳에 남아 있는데 특히 【작품 7】 **너와 나** 에서는 남녀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서로가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하지만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다가간 부분은 상처가 되었지만 다시금 서로의 색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서로의 색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함으로 치유가 일어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듯 동일화 속에서 상대성을 존중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2) 작품으로 나타난 상처와 치유

창작행위는 작가 내면에 있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과 대면하게끔 한다. 조형언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평소 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실을 털어놓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속에서 작가는 외부세계로 내면세계를 표현하며 예술적 쾌락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는 미술치료이다.

미술 치료란 심리 치료의 일종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여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고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³⁾ 보통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려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과 스트레스, 나아가 공포감까지 일으키기 마련인데, 미술로 표현하면 직시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감소시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자기표현이 이루어지며, 억압되었던 내면세계를 외부세계로 표출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때로는 억눌려졌던 파괴적, 마이너스 적인 에너지를 창작과정에서 분출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내면을 치유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대상으로 느껴졌던 감정적인 부분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관찰가능한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억압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 폭발하여 의식을 침범할지 모르는 상태임으로 긴장상태가 지속되지만, 창작을 통해 먼저 적극적으로 불안감에 맞서 창작표현이라는 상

3)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 치료 [art therapy]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면 그 불안은 다룰 수 있는, 현실세계 속에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로 인해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감정을 가시화함으로써 내면에 존재하던 억압적인 요소들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승화가 이루어진다.⁴⁾ 상처의 작품으로써의 승화는 내면의 상처의 자가 치유와 자아가 성숙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된다.

3) 이행기의 대상으로서의 인형

어떤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중간세계를 ‘이행기’라 부른다. 세 살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와 심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심리적 탯줄을 자르고 자신과 부모가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부모와 분리되는데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기대상 (Transition object) 즉 부모를 대신하는 물건에 집착한다. 세 살 아이들이 곰 인형이나 담요 베게 등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⁵⁾

본인에게 대학교를 졸업하였을 때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일종의 이행기였다. 본격적으로 어른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불안을 달래줄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다. 또 이행기의 대상도 필요하였다. 세 살 아이들이 곰 인형이나 담요 베게 등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 하듯 곰 인형을 떠올리고 곰 인형과 나를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또 본인의 생김새가 곰과 닮았다는 점도 한 몫 하였다.

본인은 곰 인형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곰 인형을 표현함으로써 그와 같은 감정을 해소하였는데, 이는 자화상을 그리거나 자소상을 만드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단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곰 인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그 이미지

4) Ingrid Riedel 저, 「응의 분석 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정여주 역 학지사, 2000, pp42~45

5) 김혜남 저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갤리온, 2008, pp7~8

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지로 앞의 본문 5페이지에서 서술 하였듯이 창작행위 속에서 다른 물체에 투영하여 본인의 상처를 표현 할 시에는 한결 편안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관찰하는 선행과정이 필요하다. 단지 현상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상처의 상태 뿐 아니라 이 상처가 어디서 연유하였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대학교 시절에 은사님이 말씀하시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의 상처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이란 가정 하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태아 때 받은 상처까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예로 사랑하는 하는 연인들이 아이들 처럼 어투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마지막으로 사랑 받았던 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릴 적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마지막인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사랑이 단절 된 것이다. 그 사람은 나이를 먹고 몸은 성장하였어도 사랑의 나이는 자라지 못하고 아이의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았던 아이로 돌아가게 되어 그때부터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심리상태가 되고 아이와 같은 어투와 행동을 한다. 그리고 연인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마지막으로 사랑받았던 당시의 아이가 자라나 비로써 어른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 대학교를 졸업하며 겪은 심리적 불안 상태는 어릴 적 겪었을 이행기와 같은 환경이 됨으로 인하여 심리상태를 어릴 적 이행기와 같이 되돌려 놓았고 이로 인해 어릴 적 이행기와 같이 이행기대상이 필요하였다. 그로 인해 앞서 서술 한 것과 같이 본인을 곰 인형에 투영하여 곰 인형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

2.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방법

1) 상처와 치유의 상징적 표현

본인에게 있어 알루미늄 와이어를 이용하여 돌과 돌을 꿰매는 표현은 상처와 치유 상징이다. 돌의 각기 다른 부분을 꿰매어 곰 형상을 만드는 행위에서 마치 자신의 상처를 꿰매는 듯 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느낌은 앞서 본문 7페이지에서 서술 하였듯이 나 자신을 곰 인형에 투사하여 작업을 하는데서 연유하였고, 한땀 한땀 반복적 작업 속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처를 예술로 승화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 짐과 동시에 스스로의 치유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 꿰매는 행위를 통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경우 바늘과 실을 통해 손상된 것이 치유되는 마술적 경험에 이끌렸고 자신의 정서 치유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여자들은 모두 바늘을 사용했다. 나는 항상 바늘에 대하여, 바늘의 마법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었다. 바늘은 훼손된 것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 이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⁶⁾

이처럼 꿰매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실지로 심리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미술치료에서 꿰매기, 뜨개질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신체 동작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가지는 치료성이 다른데, 실제로 바느질이나 뜨개질은 신체동작의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 안정감을 갖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과 욕구불만의 내성에 좋은 효과가 있다.⁷⁾

본인에게 있어 알루미늄 와이어가 띄고 있는 여러 가지 원색에 가까운 색상이 의미하는 바는 상처의 이면적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보통의 상처는 숨기고 싶은 성질의 것이며, 아름다운 색보다는 어둡고 칙칙한 색이 어울

6) 루이즈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조각가, 설치미술가, 1911년-2010년

7) 김진숙 저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3, p.153

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 나타난 와이어의 께맨 자국은 상처보다는 치유의 결과물이다.

치유는 어떠한 상황이던 박수 받아 마땅하다. 상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는가.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한 께맨 자국들은 아름다운 원색을 띄고 반짝 반짝 빛이 난다. 치유를 하고 이겨낸 자국은 마치 삶의 훈장과도 같다.

2) 생명체로서의 인형

본래 인형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무생물로써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장난감의 일종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인형들은 각기 몸짓이나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감정을 투사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감정을 투사함에 따라 작품 속 인형들은 각기 다른 몸짓과 표정을 짓게 되고 본디의 성질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 몸짓들은 말이나 음성을 통하지 않고도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몸짓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적응 행위와 상징 행위, 설명 행위로 구분된다. 적응행위란 환경이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행위를 말한다. 추울 때 양손을 비비고, 눈이 부시면 손으로 가리는 것처럼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몸짓이다. 상징행위는 언어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몸짓으로 엄지를 추켜세워 ‘최고’ 라는 의미를 전달하거나, 엄지와 검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돈’ 을 의미하거나 가까이 오라고 손짓, 하트를 그리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설명 행위는 주로 언어와 함께 사용되며, 언어를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뜻을 명확하게 해 주는 몸짓을 말한다. 귀여운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수고한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경우에 따라서 언어적 표현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대개 말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확고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⁸⁾ 이러한 몸짓들은 작품에서 조형언어로써 나타난다. 본인의 작품은 상처와 치유를 담고 있기에 작품 속 인형들의 몸짓은 활달하지 않고 정적인 몸짓이 대부분이다. 이는 상처를 받거나 버려진 모습들이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치유의 과정의 힘듦이나 치유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다. 이는 치유와 상처에 대한 상징행위로 볼 수 있다.

【작 품 1】 **치유하다_피에타** 는 그 우울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 또한 활달하지 않고 조용히 무표정으로 토끼 형상을 곰 인형 형상이 안고 있다. 위로를 하는 듯 한 몸짓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형상들은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하기 힘들다. 보통 감정은 마음의 창이라고 보통 일컫는 눈을 통해 들어나기 마련인데, 검은 돌로 조각하여 박아 넣은 눈은 단지 눈이라는 표시 외엔 어떠한 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유추하기 어렵고 또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 중의적인 의미로는 슬픔, 기쁨, 사랑, 미움 등이 있겠는데 인형의 눈은 어떠한 감정을 담고 있더라도 단지 동그란 눈일 뿐이기에 보는 이의 감정에 맡겨 둘 수밖에 없다. 다른 나머지의 작품들의 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 품 8】 **누군가를 위한 선물**처럼 앉아 있는 포즈가 대부분인데 이는 위에서 밝혔듯이 치유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의자가 가진 의미 때문이다. 누워서 쉬는 포즈로 표현 할 수도 있으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휴식이라는 의미에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더해준다. 【작 품 5】 **치유하다_녹색리본** 은 얇고 작품에 비해 높으며, 위태로워 보이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는 그 고민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작 품 2】 **치유하다_지나친 관심**, 【작 품 3】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작 품 6】 **별이 빛나는 밤에**, 【작 품 7】 **너와나** 는 인형 형상의 상체

8) 김우룡 · 김해영 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 2014, p10

혹은 인형머리의 형상들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작 품 3】의 경우 인형 머리의 형상을 3단으로 쌓아 두었는데 아프리카의 토렘형상의 탑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형상 외에도 담겨진 의미도 토렘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는 가정의 행복과 화합,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같이 나뉘어진 상처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형의 머리 형상만으로도 작품을 구성한 다른 이유로는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로댕의 작품 ‘걷고 있는 남자’의 경우 토르소가 마치 하반신에 의해 옮겨지는 듯 하게 느껴질 정도로 몸과 걷고 있는 다리 외의 신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생략되어 있다. 이는 걷는 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리뿐이라고 생각 한 것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감정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인형의 머리 형상으로만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다.

3) 태고적 순수함을 간직한 돌

본인이 처음 돌을 통해 상처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돌에 균열(crack)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감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돌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돌조각을 하는 도중에 균열이 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작품 구상을 하고 조각을 하려다 균열을 발견 하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 균열이 있음으로 인해 돌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를 일부 혹은 가치의 전체를 잃게 된다.

마치 어떠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유사함을 느끼고 이 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생명력을 불어 넣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러한 금을 살려서 작업 한 것이 [작품4] 치유하다_빨간리본 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돌이 가진 물성이 있겠는데, 돌 속에 내재된 시간과 앞으

로 가질 영원성 그리고 돌이 가진 질감,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색상이라 할 수 있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하며 돌은 아마 지구가 생겨 남과 동시에 생겨났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본인에게 오고, 그 돌을 본인이 직접 손으로 깨고 자르며 쪼아서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의 작업은 거의 대부분이 돌을 쪼아서 돌의 속살을 꺼내 보이는 표현 방식이 대부분이다. 돌이 속 안에 가지고 있는 색상이나 질감은 겉 표면에서 느낄 수 없는 순수함과 내재적인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

본인의 조각은 대부분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암은 인도에서 가져 온 돌로 운반작용에 의해 입자들이 쌓여 만들어진 쇄설성 퇴적암. 주로 1/16mm(밀리미터)에서 2mm의 크기의 모래입자로 이루어진 돌이다. 단단함의 강도가 대리석과 비슷한 정도로 제작에 편의성과 동시에 정으로 쪼아서 조각할 시에 표면으로 나타난 질감, 다양한 색상에서 매력을 느껴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석질로 각기 곱 인형들이 가진 다양한 색상을 인위적으로 염색이나 채색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돌이 가진 그대로의 질감과 색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재료들이 가지지 못한 재료자체가 감정적으로 주는 순수함, 화려하진 않지만 담백함과 진솔함을 느끼게끔 한다.

3. 작품 분석



【작 품 1】 치유하다_피에타, 화강석,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도장,
알루미늄 와이어, 1200x1400x1300mm, 2014

【작 품 1】 치유하다_피에타

연 도 : 2014

크 기 : 1200x1400x1300mm

재 료 : 화강석,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알루미늄 와이어,

제작방법

- 1) 여러 개의 돌(오석, 분홍색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각 부분을 제작 계획에 맞게 접합부위를 유의하며 제작한다.
- 2) 곰 형상은 오석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형상들을 제작 후 곰 인형의 털과 같은 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 툴과 정을 이용하여 쪼아서 제작한다.
- 3) 토끼 형상은 분홍색 화강석으로 제작되었으며, 곰과 같이 에어 툴과 정을 이용하여 표면을 표현한다.
- 4) 눈과 코는 따로 제작하여 그 부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에폭시로 고정하였다.
- 5)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이 쪼개어 진 듯 한 틈을 내고 그 틈을 따라 돌을 뚫고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 6) 목에 띠 부분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성형하여 제작 후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하여 부착토록 하였다.

작품 설명

본 작품은 곰 인형이 토끼 인형을 다리 위에 눕히고 있는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곰 인형과 토끼 인형은 사랑하는 남녀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오마주한 작품으로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형은 본디 눈을 감거나 혹은 감정의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인형들은 죽거나 혹은 살았거나 하는 구분을 하기 어렵다. 토끼 인형이 잠이 들었는지 죽어있는지, 혹은 웃고 있는 인형인지는 관람하는 당사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곰 인형이 사랑스런 눈빛으로 토끼인형을 보고 있는지 슬픈 눈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 또한 보는 이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들은 행복해 보이거나 활달해 보이지 않고, 우울하고 슬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 본디 가지고 있는 상처와 치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 작품은 본 논문에서 이야기 하는 상처와 치유를 남녀 관계라는 것을 통하여 표현코자 하였다.



【작 품 2】 치유하다_지나친 관심, 붉은사암,오석 알루미늄와이어
400x200x470mm, 2014

【작 품 2】 치유하다_지나친 관심

연 도 : 2014

크 기 : 400x200x470mm

재 료 : 붉은사암,오석 알루미늄와이어

제작방법

- 1) 본 작업은 모형 없이 그 때의 즉흥적인 감정에 이끌려 만들어진 작품으로 돌 위에 대략적인 선을 그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드로잉 후 제작되었다.
- 2) 사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형상들을 제작 후 곰 인형의 털과 같은 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 툴과 정을 이용하여 쪼아서 제작한다. 이때 손가락 자국은 제외하여 남겨두었다.
- 3) 눈과 코는 따로 제작하여 그 부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에폭시로 고정하였다.
- 5)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이 쪼개어 진 듯 한 틈을 내고 그 틈을 따라 돌을 뚫고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 6) 어린 곰 인형을 표현하기 위해 레이스가 자수되어진 듯 한 텍받이를 조각해 넣었다.

작품설명

상처를 받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 지나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코자 하였다. 가령 연약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를 예쁘다고 자꾸만 쓰다듬고 만지면 그 힘에 의해서 그 생명체가 상하거나 다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상처란 가만히 뒹야 할 때도 있는데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열어보면 되려 반감이 생겨 낫지 않거나 덧나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곰인형의 표면에 새겨진, 혹은 남겨진 손자국들로 조형화 하였다.

그 손자국들은 관심을 가진 흔적이고 상처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 손자국을 가로지르는 상처 자국을 빨간색 와이어로 꿰매고 치유하려 하였다.



【작 품 3】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사암, 오석, 알루미늄 와이어
250x230x400mm, 2014

【작 품 3】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연 도 : 2014

크 기 : 250x230x400mm

재 료 : 사암, 오석, 알루미늄 와이어

제작방법

- 1) 각기 다른 돌을 이용하여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의 형상으로 조각 하였다.
- 2) 사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형상들을 제작 후 곰 인형의 털과 같은 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 털과 정을 이용하여 쪼아서 제작한다.
- 3) 눈과 코는 따로 제작하여 그 부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에폭시로 고정하였다.
- 4)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이 쪼개어 진 듯 한 틈을 내고 그 틈을 따라 돌을 뚫고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 5) 제작된 각각의 형상들을 에폭시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작품설명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이라는 동요에서 착안한 작업으로 가족의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장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아래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감당하고 있고, 어머니는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아이는 부모의 희생 속에서 가장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다. 각기 다른 표정들을 가지려고 했으나, 그러한 힘들과 무게 속에서도 다 같이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 품 4】 치유하다_빨간리본, 사암,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오석
알루미늄와이어, 460x 400x 400mm, 2014

【작 품 4】 치유하다_빨간리본

연 도 : 2014

크 기 : 460x 400x 400mm

재 료 : 사암,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오석, 알루미늄와이어

제작방법

- 1) 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균열을 중심으로 하여 각기 곰 인형의 부분을 제작하였다.
- 2) 사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형상들을 제작 후 곰 인형의 털과 같은 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 툴과 정을 이용하여 쪼아서 제작한다.
- 3) 눈과 코는 따로 제작하여 그 부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에폭시로 고정하였다.
- 4)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이 쪼개어 진 듯 한 틈을 내고 그 틈을 따라 돌을 뚫고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 5) 제작된 각각의 형상들을 에폭시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 6)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하여 리본을 만들고 빨간색으로 우레탄 도장하여 마감하였다.

작품설명

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균열(틈)을 이용하여 돌을 쪼개고 다시 붙이고 꿰매어 작업하였다. 이는 인위적으로 돌에 흠을 파기보다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균열을 이용함으로써 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야기와 인간이 자연적으로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과 또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 품 5】 치유하다_녹색리본, 사암,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알루미늄 와이어, 300x270x 1270mm, 2014

【작 품 5】 치유하다_녹색리본

연 도 : 2014

크 기 : 300x270x 1270mm

재 료 : 사암,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오석, 알루미늄와이어

제작방법

- 1) 각기 곱의 부분들을 베이지색 사암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 2) 곱 인형의 질감을 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 툴과 정을 이용하여 쪼아서 제작한다.
- 3) 눈과 코는 따로 제작하여 그 부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에폭시로 고정하였다.
- 4)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이 쪼개어 진 듯 한 틈을 내고 그 틈을 따라 돌을 뚫고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 5) 제작된 각각의 형상들을 에폭시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 6)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하여 리본을 만들고 녹색으로 우레탄 도장하여 마감하였다.

작품설명

선물 받은 인형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다른 작업과 달리 표면을 포근해 보이는 누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아기 곱 인형의 형상인데 이는 어린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상징적 의미이고 그러한 상처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이해하려 하였다. 또 치유의 과정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높은 의자에 앉혔다.



【작 품 6】 별이 빛나는 밤에, 사암, 오석, 스테인레스 티, 우레탄도장,
알루미늄와이어, 300x 200x 500mm ,2014

【작 품 6】 별이 빛나는 밤에

연 도 : 2014

크 기 : 300x 200x 500mm

재 료 : 사암,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오석, 알루미늄와이어

제작방법

- 1) 각기 곱의 부분들을 베이지색 사암과 오석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 2) 곱 인형의 질감을 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 툴과 정을 이용하여 쪼아서 제작한다. 몸은 오석을 이용하여 제작 후 물갈기로 광을 내고 별 무늬를 에어툴과 정을 이용하여 새겨넣었다.
- 3) 눈과 코는 따로 제작하여 그 부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에폭시로 고정하였다.
- 4)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이 쪼개어 진 듯 한 틈을 내고 그 틈을 따라 돌을 뚫고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 5) 제작된 각각의 형상들을 에폭시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 6) 스테인레스를 이용하여 모자와 리본을 제작 후 모자 안에 조명을 넣어 불을 밝혔다. 후에 우레탄 도장하여 마감하였다.

작품설명

어두운 방을 밝히듯 어두운 마음속을 밝히는 작품을 만들었다.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쓸쓸하다. 하지만 내방을 환히 밝히고 있을 누군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작 된 작품이다.



【작 품 7】 너와나, 사암, 오석, 알루미늄와이어,
300x250x230mm, 2014

【작 품 7】 너와나

연 도 : 2014

크 기 : 300x250x230mm

재 료 : 사암, 오석, 알루미늄와이어

제작방법

- 1) 각기 곰의 부분들을 베이지색 사암과 붉은사암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 2) 곰 인형의 질감을 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어 툴과 정을 이용하여 쪼아서 제작한다.
- 3) 눈과 코는 따로 제작하여 그 부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파내고 에폭시로 고정하였다.
- 4)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들이 부착된 면을 따라 돌을 뚫고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 5) 제작된 각각의 형상들을 에폭시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작품설명

남녀 관계를 토끼인형과 곰 인형의 모습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앞뒤에는 각각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토끼 인형은 귀로 눈을 가린 모습이다. 그 의미는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그에 반해 곰 인형은 특별한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앞뒤로 각각의 모습들을 꿰매어 붙인 것은 남녀관계의 상처와 치유, 떼어놓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사랑에 대한 상징이다.



【작 품 8】 누군가를 위한 선물, 사암, 오석,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700x600x1050mm, 2014

【작 품 8】 누군가를 위한 선물

연 도 : 2014

크 기 : 700x600x1050mm

재 료 : 사암, 오석,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도장

제작방법

사암을 이용하여 각각의 부분을 제작한 후 눈과 코를 만들 부분에 흙을 파내고 오석을 이용하여 조각한 눈과 코를 에폭시를 이용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정과 에어틀을 이용하여 인형이 가지고 있는 표면 질감을 표현하였다.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돌이 부착된 면을 따라, 그 돌을 뚫어 알루미늄 와이어를 박아 넣었다.

의자를 제작하여 곰 인형과 돌로 만든 편지봉투를 올려두었다.

작품설명

곰 인형과 편지는 선물로 많이 쓰이는데,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듯이 인형을 만들고 편지봉투를 만들었다. 편지 봉투는 형상은 편지봉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열어볼 수 없는 돌로 된 조각이다. 이는 열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II. 결론

본 논문은 인간이 가진 상처는 어디에서부터 연유하였는가에서 출발하여 본인의 작품에서 그러한 상처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까지 서술하여 왔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동시에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간다. 아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치유해가며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처들을 작품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치유가 되고, 타인과의 공감미 유도되어 왔다. 이처럼 창작행위는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또 밖으로 표출시키는 치유적인 힘이 있음을 느꼈다.

아울러 조형언어를 통해 말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표현하여 왔다. 장남이라는 본인의 가족구성원에서의 역할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상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남자라는 성별 또한 쉽게 어려움이나 상처에 대해서 토로하기 어려운 무언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상처 받은 나의 모습을 곰 인형을 통해 투사하고 그 곰 인형을 껴매는 과정에서 소통 회복과 자기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로인해 자신의 상처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상처를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타인의 상처도 이해 할 수 있는 조금의 시야가 생겼다. 실지로 이제껏 본인의 작품은 개인적인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다뤘었다. 일부 연인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가족애가 담긴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부분이다. 이번 작품과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추후에는 타자와의 관계, 사회 속에서 집단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상처를 직시하고 그로인해 생긴 본인의 상처 뿐 아니라 타자의 상처도 아울러 치유할 작품을 추구하고자 한다.

본인은 앞으로 살아가며 받을 수많은 상처를 작업으로 승화시키고 또 작업으로 치유해 나갈 것이다. 작업을 하는 것조차 새로운 상처가 될지언정 상처 받

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치유하며 작업해 나가겠다.

끝으로 수많은 상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경애를 표하며 이 논문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강신주 저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동녘, 2010

김혜남 저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갤리온, 2008

김진숙 저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1993

김우룡 · 김해영 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 2014

Ingrid Riedel 저,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정여주 역,
학지사, 2000,

이름트라우트타르 저, 「나는 위로받고 싶다」 김태영 역, 펼침, 2009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ABSTRACT

An Expression Study On The Internal Injury Healing
through the bear image

– ON THE BASIS OF MY WORK –

Park, seong ha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 live being injured and healing the injury endlessly in the life. The injury people receive is largely divided into the physical injury and the psychological injury, and the injury from the outside by others is called wound and the wound one inflicts on himself is called self-injury. The injury can be distinguished based on the subject which affronts.

The author has also lived receiving and inflicting a number of injuries ranging from big and small physical wounds to the internal wounds and has lived healing those injuries. The author attempted to heal expressing the internal wound through the sculpture activity.

The sculpting behavior is a means of the communication that shows the wound outwards from the inside while embodying the invisible internal wound. The author communicated with others through this

behavior and experienced a healing of the internal wound by giving and taking the comfort of the mind in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sympathy through the communication.

Also, the author understood the monk's mind fully who cultivated himself spiritually while doing penance in the creative behavior in the physical labor of cutting the stone, and felt certain catharsis in the process. This process is similar to a behavior of sublimating the pain into the art that many former artists have done.

In the process of healing the wound one has by sublimating into the work and the audience sympathizing with the work, the effect of healing the internal wound is expected as one experienced.

This thesis consists of total 3 chapters which described the work formation background and the expression method targeting this work by the author.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described the study goal and its method.

In the body of chapter 2, the work formation background and the work expression method which became a ground of the author's work were described, and the formative nature and the production method were described in the work analysis.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e contents and the work of this thesis were arranged generally and the future work direction was suggested.